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한국교회와 손잡고 지역 돌봄 안전망 강화 나선다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, (사)한국교회총연합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와 업무협약 체결
- 교회 유휴시설 활용한 돌봄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 완화 기대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부위원장 김진오, 이하 '위원회')는 7월 6일 (사)한국교회총연합(이하 '한교총')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(이하 '감리교본부')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저출생 대응과 돌봄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.
 - 이번 협약은 심화되는 저출생·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, 가족·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위원회와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결혼·출산·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,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회복에 관한 대국민 인식변화활동 전개, 부모 교육·상담 프로그램 확대, 교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돌봄공간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 - 이에 따라 한교총과 감리교본부는 교회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영유아·아동·노인 돌봄 및 부모·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.
 - 특히, 감리교본부는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「R-SPACE 프로젝트」*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며, 위원회는 정책적 연계 및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.

* 종교시설 유희 공간 나눔 활용사업, R(Religion)-Space

- 김진오 부위원장은 “이번 협약은 종교시설이 지역사회 돌봄과 세대통합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며
 - 이를 통해 “결혼·출산·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- 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인구위기 대응 및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른 종교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기업지역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성근 (02-2100-1234)
		담당자	연 구 원	이정미 (02-2100-1237)